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부모방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와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조절된 매개효과

나 지 훈¹ | 장 은 지^{2*}

¹ 대구가톨릭대학교

² 동아대학교

* 교신저자: 장은지
(8336179@naver.com)

초 록

본 연구는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인지한 부모방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와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국제결혼가정 자녀 1,283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PROCESS macro의 Model 4, 14를 적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인지한 부모방임은 우울에 유의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방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셋째, 친사회적 학교환경은 사회적 위축과 우울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사회적 학교환경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우울 예방을 위해 부모 교육을 통한 ‘부모방임’ 인식 개선, 학교 기반의 조기 선별 체계 구축,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강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층적·통합적 개입 전략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요 용어: 국제결혼가정 자녀, 부모방임, 우울, 사회적 위축, 친사회적 학교환경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국내 출생·성장으로 인해 제도적 위험군으로 분류되기 어렵지만, 부모의 언어적 제약이나 사회적 고립 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정서적·교육적 방임이 겹쳐서 드러나지 않은 채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방임이 어떤 심리적 경로를 거쳐 우울로 이어지는지, 학교환경이 이를 완충할 수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부모방임은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위축을 경유해 간접적으로도 우울을 심화시키는 부분매개 경로가 확인되었다. 또한 또래 교사와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지지적인 학교환경일수록 사회적 위축이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하게 완화된다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실증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부모 교육을 통한 ‘방임’ 인식 개선, 학교 기반 조기 선별 체계 구축, 가족센터 등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연계라는 다층적 개입 체계가 필요하다. 학교는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정서적 성장 환경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중단 연구 및 다양한 이주 배경 집단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개입 근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 투 고 일: 2026. 04. 28.

■ 수 정 일: 2026. 07. 10.

■ 게재확정일: 2026. 08. 25.

I. 서론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는 불안, 공격성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홍나미, 박현정, 2017; Achenbach, 1991), 그중에서도 우울은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사회적 위험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이다(질병관리청, 2022). 특히, 우울은 대표적인 내재화 문제로 외현화되지 않아 조기발견과 개입이 어렵다는 특징을 지니며(유지희, 황숙연, 2016), 일시적 정서 상태를 넘어 자아존중감 저하, 학업 동기 약화, 대인관계 단절, 학교 중도탈락 등 다양한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한 경우 자살과 같은 치명적 결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발달적 위험 요인으로 간주된다(나지훈, 장은지, 2025; 손병덕, 2005; 최현진 외, 2015).

이러한 우울의 위험은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이행하는 가운데, 다문화 청소년에게서 한층 중첩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다문화 청소년은 사회적 차별, 심리정서적 문제, 자살 위험 등 다수의 정신건강 지표에서 비(非)다문화 청소년보다 취약한 집단으로 보고되며(여성가족부, 2022), 실제로 우울 수준 또한 비(非)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왔다(유지희, 황숙연, 2016). 이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청소년 복지 및 교육 현장에서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할 주요 사회적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이주 배경을 지닌 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부모의 결합 유형과 청소년 본인의 출생지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자녀, 성장 과정에서 입국한 중도입국 청소년,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가정 자녀로 구분된다(교육부, 2025). 이 가운데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전체 다문화 학생(20만 2,208명) 중 가장 비중이 큰 유형(약 71% 수준, 전체 학생의 4.0%)으로, 다문화 학생 구성의 주축을 이룬다(교육부, 2025). 본 연구가 다문화 청소년 중에서도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주목하는 일차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내에서 출생·성장한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외국인가정 자녀와 비교할 때, 일상적 의사소통 능력과 제도적 접근성(학적 편입, 교육과정 진입 등)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조건을 갖춘 집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성은 표면적 차원에 국한될 수 있다. Cummins(1979)가 구분한 바와 같이, 일상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BICS: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ve Skills)의 습득이 곧 교과 학습에 요구되는 인지·학문적 언어 능력(CALP: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의 확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일상 언어에서는 어려움이 없더라도 학습언어의 격차가 아동기 동안 잠재된 형태로 누적될 수 있으며(Snow & Uccelli, 2009), 이와 함께 가정 내 정서적 돌봄의 공백과 또래 관계에서의 소속감 불안정 역시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채 축적될 수 있다.

문제는 바로 이 표면적 안정성으로 인해 이들이 제도적 위험군으로 분류되거나 조기 개입의 대상으로 포착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적응에 성공한 집단'으로 간주되는 그 인식 자체가 심리정서적 위험을 은폐하는 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집단이다. 이 점에서 이들이 놓인 사각지대는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외국인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사각지대와 성격을 달리한다. 후자가 명백한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충분히 닿지 못하는 접근의 문제라면, 전자는 위험 자체가 인식되지 않아 선별과 개입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식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문화 학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최대 집단에서 발생하는 이 식별되지 않는 위험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다문화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의 기초 작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비가시성은 가정 내 돌봄 구조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발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가정이며, 부모의 양육 태도는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유능감 형성의 핵심적 기반을 이룬다(박영신, 박영균, 김의철, 2010). 그러나 국제결혼가정에서는 한국인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 경제적 부양자 역할에 머무르고 양육을 배우자가 전담하는 경향이 보고되며(오성배, 2010; 박희훈, 오성배, 2014; 장안서, 이해정, 2024), 외국 출신 어머니는 양육에 대한 참여 의지와 책임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제약, 문화적 차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자녀의 정서적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이기 쉽다. 나아가 부모가 한국의 언어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자녀가 오히려 부모의 통역·번역과 행정적 의사소통을 대신 수행하며 돌봄의 방향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Boszormenyi-Nagy & Spark, 1973; Morales & Hanson, 2005)는, 이러한 돌봄 공백이 부모의 양육 의지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조건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 즉, 국제결혼가정의 방임은 신체적 학대와 같은 가시적 지표를 동반하지 않은 채 외형적으로 '문제없는 가정'의 모습 속에서 정서적·교육적 결핍이 누적되는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표면적 안정성과 결합되어 조기 개입의 사각지대를 이중으로 강화한다.

학교 맥락에서의 관계 경험 역시 이러한 위험 구조의 한 축을 이룬다.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의 최근 1년 이내 차별 경험 비율은 4.7%로 직전 조사(2021년 2.1%)에 비해 다시 증가하였으며, 그 차별은 또래 관계에서의 놀림이나 배제(87.1%),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의 부정적 경험(43.6%) 등 주로 학교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여성가족부, 2025).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외모·가정 배경·언어 사용 방식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한국인-비(非)한국인'의 경계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논의(박희훈, 오성배, 2014; 서덕희, 오성배, 2012)와 함께 보면, 이는 이들이 경험하는 관계적 배제가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함을 보여준다. 차별 인식이 사회적 위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누적된다는 실증 결과(김동욱, 장근호, 조민호, 2023)를 고려하면, 학교 내에서 반복되는 배제 경험은 사회적 위축을 유발·강화하고 나아가 우울로 이어지는 내재화 경로로 작동할 수 있으며, 역으로 이는 차별과 위축이 발생하는 바로 그 공간인 학교의 관계적 환경이 해당 경로를 완충할 수 있는 핵심적 개입 지점이 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선행연구들은 부모방임이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과 유의한 관련성을 지님을 반복적으로 보고해 왔다(오승환, 2016; 유지희, 황숙연, 2016; 홍나미, 박현정, 2017). 부모의 정서적 무관심과 감독 부족은 청소년 스스로에게 충분한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여 우울 수준을 높이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만성적 스트레스원이 긴장을 축적시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한다는 일반긴장이론(Agnew, 1992)과 부모를 정서적 안전기지로 보는 생태체계 이론(Bronfenbrenner, 1979)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나아가 부모방임은 우울로 곧바로 이어질 뿐 아니라, 관계 형성을 회피하거나 스스로를 사회적 상황에서 철회시키는 사회적 위축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우울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주목되어 왔다(김수민, 2024; 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홍나미, 박현정, 201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앞서 살펴본 학습언어 격차의 표면화와 반복적인 배제 경험, 소속감의 결여가 이러한 위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경로에 대한 구조적 검증이 요구된다.

그러나 부모방임이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거쳐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우울로 이어지는지를 통합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비(非)다문화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 수준 차이를 확인한 연구(유지희, 황숙연, 2016)는 집단 간 차이의 존재를 보여주었으나 그 차이가 형성되는 심리적 과정을 검증하지 않았고, 군집 분석이나 변화계적 분석을 활용한 연구들(임영은, 임동선, 2025; 최효식, 연은모, 2020)은 집단 내부의 이질성과 위축의 변화 양상을 제시하였으나 부모방임에서 우울에 이르는 경로 구조를 직접 다루지 않았으며, 매개 관계를 검증한 연구(홍나미, 박현정, 2017)는 우울을 최종 결과변수가 아닌 학교적응에 이르는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다문화 청소년을 하위 유형의 구분 없이 단일 집단으로 분석하였다. 요컨대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별도로 구분하여 부모방임-사회적 위축-우울의 내재화 경로를 우울을 중심 결과로 검증하고, 나아가 이 경로를 완충할 수 있는 보호 요인까지 동시에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호 요인과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것이 학교환경이다.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발달은 단일한 환경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가정과 학교, 또래 집단 등 다양한 환경 맥락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며, 최근 연구들은 다문화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문제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교사와 또래의 지지·존중에 기반한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보호적 기능에 주목해 왔다(류승아, 2024; 정정교, 정혜원, 2023; 정지나, 손승희, 2020). 특히 국제결혼가정

자녀에게 친사회적 학교환경은 가정에서 충족되지 못한 정서적 욕구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대체적 지지 자원으로, 사회적 위축이 우울로 전이되는 경로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조절 변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학교 관련 변인을 개인의 적응 결과가 아닌 학생을 둘러싼 환경의 속성으로 개념화하여, 가정에서 발생한 위험이 우울로 이행하는 경로가 학교환경의 성격에 따라 완충될 수 있는가를 묻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방임-사회적 위축-우울의 경로를 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조절 효과를 동시에 검증한 실증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중학교 2학년 시기는 청소년기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적 의미를 지닌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은 학습 내용의 난이도와 추상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또래관계의 비중이 확대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으며, 특히 추상적 사고와 고차원적 학습언어(CALP)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발달적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로 보고된다(Snow & Uccelli, 2009).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출생 성장한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일상적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없을 수 있으나, 아동기 동안 잠재된 형태로 누적된 학습언어 격차는 바로 이 전환기에 학업 수행과 또래관계 과정에서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양계민, 조혜영, 2012). 따라서 중학교 2학년 시기는 표면적 안정성 아래 은폐되어 온 위험이 표면화되는 시점으로서,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가정 내 방임적 환경과 학교 환경의 영향이 사회적 위축 및 우울로 이행되는 양상을 포착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시기의 조기 선별과 개입은 이후 적응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방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와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통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우울을 개인의 취약성으로 환원하지 않고, 표면적 안정성으로 인해 위험이 은폐되기 쉬운 이 집단의 특성을 가정과 학교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조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향후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예방적·환경적 정신건강 개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발달 맥락과 심리·정서적 경험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한국 사회에서 출생·성장하지만, 가정 내에서 외국 출신 부모의 언어·문화·가치관이 일상적 양육 환경에 반영됨으로써 비(非)다문화가정 자녀는 물론, 다른 유형의 다문화가정 자녀와도 구별되는 발달 맥락을 형성한다(박미경, 엄정애, 2007). 이 집단의 핵심적 특징은 '이주 경험' 자체가 아니라 가정의 문화·언어 환경이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이들의 심리·정서적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중에서도 언어·의사소통 환경은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조건으로 작용한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가정 내 언어 환경과 학교에서 요구되는 언어 환경 간의 불일치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불일치는 일상적 의사소통의 문제로 나타나기보다 학령기에 본격화되는 학습언어(CALP) 수행의 격차로 표면화되며(Cummins, 1979), 이 격차가 또래와의 비교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상호작용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유발하고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함으로써 사회적 위축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외국 출신 어머니가 주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 가정 내 언어 환경은 비(非)다문화가정과 다르게 형성될 수 있으며(설동훈, 윤홍식, 2008; 여성가족부, 2025; 임동선 외, 2021), 이는 학령기에 요구되는 읽기·쓰기·어휘·독해 등 교과 학습언어의 부담과 수업 참여·과제 수행에서의 반복적 좌절로 이어질 수 있다(김혜미, 원서진, 최선화, 2011). 또한 부모가

언어 장벽,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학교와의 소통이나 자녀의 과제 점진, 진학 정보 탐색과 같은 일상적 교육 지원에 제약을 겪을 경우, 이는 자녀의 학업 태도와 학교 적응에 누적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천호성, 박계숙, 2012).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조건은 사회적 경계 경험과 차별의 누적이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외모·가정 배경·언어 사용 방식 등으로 인해 또래 관계에서 ‘한국인-비(非)한국인’의 경계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소속감의 균열과 자아존중감 저하, 대인관계 회피 및 위축으로 축적될 수 있다(오성배, 2006). 실제로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은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김동진, 서은숙, 2021), 차별의 강도는 생활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안녕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며(그레이스 정, 이지연, 2016), 차별 인식은 사회적 위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누적될 수 있다(김동욱, 장근호, 조민호, 2023).

이처럼 언어 환경의 격차와 관계적 경계 경험은 가정 내 돌봄의 결핍과 결합될 때 그 부정적 영향이 더욱 심화된다. 국제결혼가정의 부모는 문화적 적응 부담,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제약으로 인해 자녀에게 일관된 정서적 관심과 감독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가정에서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에서의 배제 경험이 반복될 경우 청소년은 어느 환경에서도 관계적 안전지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더욱 취약해진다(김수민, 2024). 따라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 돌봄 결핍의 핵심 형태인 부모방임을 명확히 개념화하고, 그것이 우울로 이행하는 경로가 학교환경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2. 부모방임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우울 및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부모방임이 우울 및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방임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방임(neglect)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양육·치료·교육 등을 소홀히 하여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아동복지법 제3조는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술적으로 방임은 적극적 가해 행위인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달리 필요한 돌봄의 부작위(omission)로 정의되며,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물리적 방임, 애정·관심·정서적 반응을 제공하지 않는 정서적 방임, 교육적 필요를 방치하는 교육적 방임,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 등으로 세분된다(Hildyard & Wolfe, 2002). 방임은 가시적 손상을 남기는 학대에 비해 외부에서 포착되기 어렵고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특성을 지니며, 그럼에도 발달 결과에서는 신체적 학대 못지않거나 그 이상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Hildyard & Wolfe, 2002; McLeod, Weisz, & Wood, 2007).

한편 방임은 그 판정 주체와 준거에 따라 상이한 층위에서 개념화될 수 있다. 아동복지 실천에서의 방임이 보호자의 행위가 법적·제도적 판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외부 관찰자의 관점에서 규정하는 협의의 개념이라면, 발달 교육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는 ‘지각된 방임적 양육태도’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관심·돌봄·감독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양자는 연속선상에 있으나 동일하지 않다. 법적 판정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방임적 양육이라도 자녀가 지각하는 돌봄의 결핍은 자아존중감과 정서 발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는 객관적 행위의 심각도보다 자녀의 주관적 지각과 더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방임은 자녀가 인지한 방임적 양육태도로서 조작적으로 정의되며, 이는 아동보호 체계에서 다루는 학대 판정으로서의 방임과 구별된다. 이러한 광의의 접근은 제도적 개입 기준에 도달하기 이전 단계의 돌봄 결핍—서론에서 논의한 국제결혼가정의 구조적·비의도적 방임이 전형적으로 해당하는—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이 은폐되기 쉬운 본 연구 대상 집단의 특성에 오히려 부합하는 개념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임이 다문화가정에서 실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전국 단위 통계는 아직 제한적이다. 아동학대 통계는 학대 유형별 건수를 집계하고 있으나 가정의 문화적 배경에 따른 방임 발생률을 구분하여 보고하지 않으며, 이는 역으로 제도적 통계 체계가 이 집단의 방임 위험을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만 방임의 위험 조건에 해당하는 지표들은 최근 실태조사에서 일관되게 확인된다.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귀화자 부모는 학령기 자녀의 학습 지도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 등의 문제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상당한 비중으로 나타나 양육을 둘러싼 사회적 자원의 결핍이 확인된다(여성가족부, 2025). 선행연구 또한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사회적 위축과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오동균, 2019; 전수정, 윤혜미, 2013),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같은 구조적 조건이 자녀의 적응과 관련됨을 보고해 왔다(전수정, 윤혜미, 2013). 요컨대 현재의 근거는 다문화가정에서 방임이 더 빈번하다는 단정을 지지한다기보다, 방임의 구조적 위험 조건이 존재함에도 그 실태가 공식 통계와 개입 체계에 포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본 연구가 주목하는 ‘은폐된 위험’의 문제의식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가. 부모방임과 우울의 관계

부모방임은 청소년의 우울을 예측하는 주요한 가족 관련 위험요인 중 하나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다(김평화, 이경상, 2018; 나지훈, 장은지, 2025; 안혜진, 2016; 최홍일, 김진희, 2013; 최효식, 연은모, 2022; 홍나미, 임은의, 2016). 방임은 자녀에게 필요한 정서적 관심·보호·감독·교육적 지지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체적 학대와 달리 외형적 손상이 드러나지 않아 간과되기 쉽다. 이러한 결핍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인식을 형성하게 하고, 자아존중감 저하와 정서적 무력감을 누적시켜 우울을 비교적 안정적인 내면화 문제로 고착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청소년기 우울은 분노, 무기력, 신체 증상 등으로 위장된 가면성(masked) 우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렵고(이정선, 이형실, 2012), 방임적 양육태도는 이를 초기에 인식하고 개입할 기회마저 줄여 그 부정적 영향을 증폭시킨다.

이러한 관계는 복수의 이론적 관점으로 설명된다. 일반긴장이론에 따르면 부모방임과 같은 만성적·일상적 긴장 요인은 청소년에게 우울·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며, 이 정서가 적절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후 다양한 부적응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Agnew, 1992). 도파민론 역시 부정적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개인이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며 이를 회피하려는 심리적·행동적 반응을 보인다고 설명한다(Baumeister, 1990; Paxton & Diggins, 1997). 나아가 생태체계 이론(Bronfenbrenner, 1979)은 부모를 청소년이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안전기지를 제공하는 핵심적 존재로 보며, 이 기능이 약화될 때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정이 심화됨을 시사한다.

실증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일관되게 확인된다. 국내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방임이 우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고(안혜진, 2016; 홍나미, 임은의, 2016), 종단 연구를 통해서도 부모방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울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함이 검증되었다(안혜진, 2016). 정서적 방임, 즉 부모의 관심·사랑·격려의 부족은 청소년기 주요 우울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김평화, 이경상, 2018; 최효식, 연은모, 2022; 홍나미, 임은의, 2016),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방임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혜민, 전종설, 2024). 해외 연구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데, 메타분석에서는 부모의 통제보다 방임이 아동기 우울과 더 높은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cLeod, Weisz, & Wood, 2007), 방임이 신체적 학대에 비해 우울과 같은 내면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유발할 수 있음도 보고되

었다(Hildyard & Wolfe, 2002).

이러한 부모방임과 우울 간의 관계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경계나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외부 환경에서의 부정적 경험을 완충할 가정 내 정서적 지지가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외국인 어머니의 언어적·문화적 적응 부담과 경제적 불안정 등이 누적되면서 부모방임 수준이 비(非)다문화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방임 경험은 정체성 불안 및 학교 적응 어려움과 중첩되어 우울로 이행하거나 그 수준을 심화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우울은 개인적 성향이나 문화적 차이로 환원되기보다, 가정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구조적·관계적 결핍의 결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강민재, 나지훈, 2025).

나. 부모방임과 사회적 위축의 관계

사회적 위축은 또래나 타인과 상호작용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형성을 회피하거나 스스로를 사회적 상황에서 철화시키는 행동 양식으로, 지나친 부끄러움, 대인관계 회피, 심리적 위축 등을 포함한다(김금순, 김은미, 2015; 김수정, 광금주, 2012; 정일영, 2016). 청소년기의 사회적 위축은 선천적 기질보다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등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로부터 일관된 관심과 정서적 반응을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에 대한 불안을 과도하게 지각하게 되며, 이는 새로운 관계 형성에 대한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부모의 방임적 양육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위축은 다시 우울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수민, 2024; 홍나미, 박현정, 2017). 이는 부모방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한 직접효과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위축과 같은 내재화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방임과 학대를 경험할수록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높아지며 학교 적응에도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된다(박기원, 2014; 이영애, 정현희, 2017; 장신재, 양혜원, 2007).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들 역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명확한 규칙과 기대를 설정하고 이를 적절히 감독하며 지지하는 양육 태도는 사회적 위축을 낮추고 또래 지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이용호, 신혜형, 이원익, 2023), 방임적·거부적·비일관적 양육태도는 사회적 위축을 증가시키고 친밀한 관계 형성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연, 안선경, 정익중, 2022; 김후남, 정현희, 2018; 박선숙, 2022; 유연주, 전주성, 2021; 전성은, 강영신, 2024; Rubin et al., 2009). 또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감독은 자녀의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는 보호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보금로, 장영은, 2024; 최효식, 연은모, 2020), 사회적 위축은 부모의 감독 및 방임과 또래 지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변인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민장배, 송진영, 2023; 이용호, 신혜형, 이원익, 2023).

부모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교감을 학습할 기회가 제한되어 사회적 기술 발달이 저해되며, 이는 또래 집단 내 소외와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이러한 위험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이들은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심리·정서적 발달 과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언어 환경의 차이, 문화적 이질성, 외모에 대한 민감성 등 비(非)다문화 청소년과는 구별되는 성장 조건을 경험한다. 이러한 이중적 발달 맥락은 또래 관계 형성과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박선숙 (2022)은 이러한 문화적·환경적 차이가 사회적 위축과 같은 심리적 불안감을 강화하고 또래 지지 형성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방임이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일반긴장이론의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일반긴장이론에 따르면 긴장은 단순히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의 사회적 대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방임으로 누적된 긴장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부와 실패를 예상하게 만들고, 이는 사회적 위축이라는 회피적 대처로 이어진다. 이 위축은 사회적 지지 자원을 차단함으로써 긴장을 해소할 기회를 박탈하고, 결국 우울을 심화시키는 이차적 긴장 축적(Agnew, 1992) 과정으로 기능한다. 즉, 사회적 위축은 긴장-정서 연쇄의 중간 기제로 이론적으로 위치 지을 수 있다.

다.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관계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 우울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심리적 경로로 작용한다.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은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 소극적·회피적 태도를 보이며, 이는 사회적 지지의 획득을 제한하고 자신이 관계에서 배제된 존재라는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부정적 자기개념과 정서적 고립감을 심화시킨다(Rubin et al., 2006).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위축은 단순한 성격 특성이나 일시적 행동 반응이 아니라,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로 이행되는 핵심적 위험 요인으로 기능한다.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은 또래로부터의 거부·무시·부정적 평가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험이 누적될수록 낮은 자존감과 무력감이 축적되어 우울 증상이 심화된다(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Bowker & Raja, 2011).

나아가 사회적 위축은 우울에 선행하는 독립적 예측 요인일 뿐 아니라, 가정 및 학교 환경의 부정적 요인이 우울로 전이되는 과정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청소년이 대인관계 상황에서 위축될수록 정서적 어려움을 외부로 표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내면으로 억제하는 경향이 강화되며, 이러한 내면화 과정은 우울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사회적 관계에서의 실패 경험은 청소년기로 갈수록 자기 평가 체계에 깊이 내면화되어 우울을 일시적 정서 반응이 아닌 비교적 안정적인 심리 상태로 고착시킬 수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이러한 경로는 더욱 취약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또래 관계 형성에서 초기부터 위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학교생활 전반에서의 소속감 저하와 정서적 고립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적절한 정서적 지지나 보호 요인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축이 지속될 경우 부정적 정서 경험은 완충되지 못한 채 누적되며, 이는 우울로의 이행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종합하면,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 우울의 주요 결과로 기능할 수 있는 핵심 변인으로, 특히 취약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에게서는 우울로 이어지는 내재화 경로의 중심적 매개 요인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우울을 설명함에 있어 사회적 위축을 단순한 동반 현상이 아닌 우울 형성 과정의 핵심적 연결 고리로 설정하여 검증하는 접근이 요구되며, 나아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보호 요인에 대한 탐색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적 위축이 한 개인이 관계 상황에서 보이는 회피적·위축된 상호작용 양상을 의미하는 내재적 특성이라면,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지지, 수용, 협력적 분위기와 같은 관계적 환경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김혜미, 원서진, 최선화, 2011; 김후남, 정현희, 2018; Bowker & Raja, 2011; Bronfenbrenner, 1979; Rubin et al., 2006). 달리 말해, 사회적 위축이 개인 안에서 나타나는 내적 반응이라면, 사회적 지지는 주변에서 지지해주고 받아주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사회적 위축과 같은 개인 내적 반응이 형성되고 완화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위축이 우울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회 관계적 차원에서의 보호요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개인과 환경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조절된 매개효과

친사회적 학교환경은 긍정적 상호작용과 협력, 존중과 배려가 촉진되는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교육적 맥락을 의미하며(정장홍, 이용환, 2016), 친사회성과 사회적 학교환경이 결합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친사회성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기반으로 개인 간·집단 간 관계를 고려하는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포함하며(나지훈, 장은지, 2025), 이것이 학교라는 제도적 공간 안에서 구현될 때 학생들은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적 안전감과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때 친사회적 학교환경은 학교적응과 개념적으로 구별될 필요가 있다. 학교적응은 학업, 교우관계, 규범 준수 등 다양한 요인이 수렴되어 나타나는 개인 수준의 포괄적 결과 상태로서, 친사회적 학교환경을 포함한 여러 환경적·개인적 변인들이 기여하는 상위의 적응 지표라 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가 주목하는 친사회적 학교환경은 그러한 적응이 형성되는 데 기여하는 관계적 자원, 즉 학생을 둘러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환경적 맥락에 해당한다. Coleman(1988)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개인을 둘러싼 관계망 속에 존재하며 개인의 발달과 성취를 촉진하는 자원으로, 가정의 경제적·인적 자본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지닌다. 실제로 학교환경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학교적응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며(김형태, 2013), 이는 학교라는 관계적 환경이 가정 배경이라는 구조적 조건으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한 보호 자원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학교적응이라는 포괄적 결과 지표 대신 친사회적 학교환경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본 연구의 관심은 학생이 학교에 얼마나 적응했는가가 아니라, 가정에서 충족되지 못한 정서적 자원을 보완할 수 있는 관계적 자본이 학교라는 공간에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가에 있다.

측정의 측면에서도 본 연구가 활용한 문항들(“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나는 우리 학교 친구들이 좋다” 등)는 학생 개인의 수행이나 적응 상태가 아니라 학생을 둘러싼 수업·교사·또래관계의 우호적·지지적 분위기에 대한 인식을 묻고 있어, 이러한 환경 변인으로서의 개념화와 정합적이다. 이는 앞서 사회적 위축(개인 내적 반응)과 사회적 지지(관계적 환경)를 구별한 것과 동일한 논리이며, 환경의 속성으로서 친사회적 학교환경은 위험요인이 결과로 이행하는 경로의 강도를 조건화하는 조절변수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절 기능은 생태체계이론(Bronfenbrenner, 1979)의 관점에서 그 작동 기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생태체계이론에서 미시체계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중간체계(mesosystem) 수준에서 상호작용한다. 가정이라는 미시체계에서 방임이 발생하더라도, 학교라는 또 다른 미시체계가 충분한 정서적 지지와 친사회적 환경을 제공한다면, 두 미시체계 간의 보완적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이 관점에서 친사회적 학교환경이라는 관계적 자본은 가정 미시체계의 결핍을 구조적으로 상쇄하는 맥락적 조절 기제로 이론화될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친사회적 학교환경을 조절변수로 설정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선행연구들은 지지적이고 친사회적인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정서적 안녕에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교사-학생 관계의 질과 학교의 전반적인 안전성은 취약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박현선, 1999),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학교환경은 학교 적응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형태, 2013). 또한 교사와 또래로부터 지지와 존중을 경험하는 학교환경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정지나, 손승희, 2020).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환경이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는 핵심 맥락임을 시사한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면, 친사회적 학교환경은 부모방임이 사회적 위축을 거쳐 우울로 이어지는 간접 경로의 강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부모방임 → 사회적 위축 → 우울이라는 내재화 경로는 학교환경의 성격에 따라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부모방임이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사회적 위축을

통해 나타나되 그 효과의 크기가 학교환경에 의해 달라지는 조절된 매개효과로 개념화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조절 위치를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관계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부모방임 그 자체는 학교라는 미시체계에 의해 직접 완화되기 어려운 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적 위축이 우울로 전이되는 과정은 학생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완충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즉, 친사회적 학교환경은 사회적 위축이 우울로 심화되는 경로를 완화하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더 자연스럽다. 이러한 관점은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우울 문제에 대한 개입이 가정환경에 대한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학교라는 일상적·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구조적 접근과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모형 설정은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구별되는 지점을 분명히 한다. 부모방임과 학교 관련 변인을 함께 다룬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학교적응을 최종 결과변수로 설정하고 우울이나 사회적 위축을 그 매개 경로로 검증하거나(박기원, 2014; 홍나미, 박현정, 2017), 반대로 우울 등을 최종 결과변수로 두고 학교적응 자체를 매개변수로 두는 방식을 취해 왔다. 이들 연구는 방임이 학생 개인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답한다. 반면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교 관련 변인을 환경의 속성으로 개념화한 본 연구는 학교가 개입 지점으로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직접 답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이러한 접근은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학교적응이라는 결과는 그 자체를 직접 조작하기 어려운 반면, 그 형성에 기여하는 관계적 환경은 학교 문화의 개선, 교사-학생 관계의 질 제고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조성 가능한 개입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반긴장이론과 생태체계이론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본 연구의 조절된 매개모형을 이론적으로 통합 지지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방임→사회적 위축→우울의 내재화 경로와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조절 기능을 통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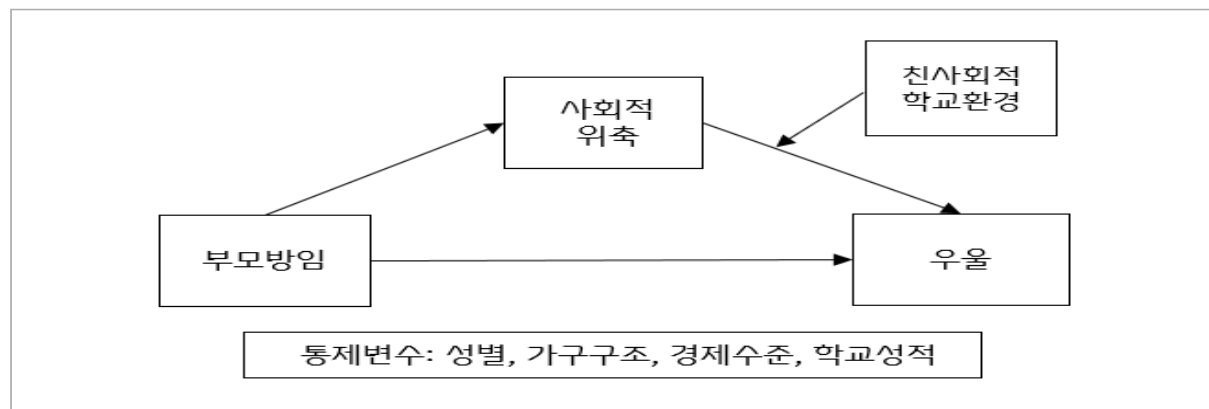
I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인지한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이들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두 변인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와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인지한 부모방임 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의 우울 수준이 높을 것이다. 둘째,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인지한 부모방임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셋째, 친사회적 학교환경은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인지한 부모방임이 사회적 위축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조절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 자료와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4)이 구축·운영하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2기 5차년도(2023년) 자료를 2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해당 패널조사는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사를 완료한 조사로서,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 목적에 한하여 공개·제공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공식 절차에 따른 데이터 이용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

MAPS 2기 패널은 2019년 전국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구축되었으며, 5차년도 조사는 이들이 중학교 2학년으로 성장한 시점에서 실시되었다. 표본추출은 2단계 층화집락추출법을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 지역을 기준으로 층화하여 표본학교를 선정하고, 2단계에서 학급 명부를 활용한 확률비례추출법을 통해 최종 표본을 추출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학교 2학년은 학업의 난이도와 추상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또래 관계의 비중이 확대되는 발달적 전환기로서, 아동기 동안 누적되어 온 가정 내 양육 경험과 언어적·문화적 격차가 학업 및 또래 관계 과정에서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양계민, 조혜영, 2012; Snow & Uccelli, 2009). 본 연구는 이러한 발달적 전환기에 처한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방임, 사회적 위축, 친사회적 학교환경,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 양상을 시의성 있게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5차년도 자료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가 설정한 조절된 매개모형은 변수 간의 복잡한 관계를 동시에 포함하므로, 이러한 구조적 관계의 성립 여부와 그 양상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어 횡단자료를 통해 변인 간 구조적 관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가정의 자녀 중 국내 출생자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로 한정하였다. 전체 표본 중 이 기준에 부합하며, 주요 변인(부모방임, 우울, 사회적 위축, 친사회적 학교환경 및 통제변수) 문항에 모두 응답하여 결측치가 없는 1,283명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 대상을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로 한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가정 자녀 등 다문화 청소년의 하위 유형은 이주 경험 유무, 언어 습득 맥락, 제도적 지원 접근성 등에서 상이한 발달 조건에 놓여 있어, 이들을 단일 집단으로 합산하여 분석할 경우 추정된 경로가 특정 유형의 실제 경험을 반영하지 못하고 유형별 맞춤형 개입의 근거로 활용되기 어렵다. 둘째,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다문화 학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최대 집단임에도, '적응에 성공한 집단'으로 간주되어 위험 식별과 조기 개입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주변화되어 왔다. 셋째, 본 연구의 이론적 관심인 '표면적 안정성 속에 은폐된 위험'은 국내 출생·성장이라는 조건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연구

문제와 분석 대상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집단으로 한정하였다. 아울러 한국인 부-외국인 모 가정으로 한정된 것은 이 조합이 국제결혼가정의 대다수를 차지할 뿐 아니라, 부모 중 누가 이주배경인지에 따라 가정 내 언어 환경과 주 양육 구조가 달라져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3. 측정도구

가. 종속변수: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개발한 간이정신진단검사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4)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등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의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90으로 나타났다.

나. 독립변수: 부모방임

부모방임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녀가 인지한 방임적 양육태도로 조작적으로 정의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이경상 외(2011)를 인용하여 문항을 수정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4)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은 Likert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부모님은 나에게 대해 관심이 없으셔서 칭찬을 하시거나 혼내시는 일이 없다' 등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방임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문항 중 2개 문항은 역채점 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41로 나타났다.

다. 매개변수: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하형석 외, 2018)에서 일부분을 발췌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4)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은 Likert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41로 나타났다.

라. 조절변수: 친사회적 학교환경

친사회적 학교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에서 인용한 문항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4)이 수정하고 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들은 학생 개인의 적응 상태가 아니라 학생을 둘러싼 수업·교사·또래관계의 우호적·지지적 분위기, 즉 환경의 속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다. 문항은 Likert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나는

우리 학교 친구들이 좋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98로 나타났다.

마. 통제변수: 성별, 가구구조, 경제수준, 학교성적

선행연구(전경숙, 박소연, 조선희, 2012; 정혜지, 나지훈, 2025; 최진영, 김기현, 2019; Akhtar, 2014; Hankin, 2006)에서는 성별, 가구구조, 경제수준, 학교성적 등을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 가구구조, 경제수준, 학교성적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남성=1, 여성=0), 가구구조(결혼=1, 기타(이혼, 별거, 사별, 동거)=0)은 더미 처리하였고, 경제수준, 학교성적은 연속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5.0 프로그램과 Hayes(2022)가 개발한 PROCESS Macro 4.2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각 변인의 문항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의 정규성 및 변인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으며, 변인들 간 상호 관련성의 방향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넷째, 부모방임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였다. 다섯째, 매개 경로가 친사회적 학교환경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즉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4를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 변수를 평균 중심화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5,000회의 재표본추출을 실시하고 95% 신뢰구간을 추정하였으며,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52.4%(672명), 여성이 47.6%(611명)로 남학생이 근소하게 많았다. 연령 평균은 14.0세로 14세가 98.1%(1,258명)로 대부분이었고, 15세가 1.0%(13명)로 그 뒤를 이었다. 가구구조는 결혼 가정이 94.0%(1,206명)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혼이 3.1%(40명)로 그 다음 순이었다. 경제수준은 '보통'이 64.7%(830명)로 가장 많았고, '어려운 편'이 25.9%(332명)로 그 다음 순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성적은 '보통'이 51.1%(655명)로 가장 높았으며, '못하는 편'이 22.5%(289명), '잘하는 편'이 20.5%(263명)로 그 뒤를 이었다. 어머니 출신국가는 베트남이 42.3%(543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중국(한족, 기타 민족)(18.0%, 231명), 필리핀(10.2%, 131명)이 그 뒤를 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283)							
항목	구분	인원(명)	백분율(%)	항목	구분	인원(명)	백분율(%)
성별	남성	672	52.4	학교 성적	매우 못한다	45	3.5
	여성	611	47.6		못하는 편이다	289	22.5
연령 (평균=14)	13	11	.9		보통이다	655	51.1
	14	1,258	98.1		잘하는 편이다	263	20.5
	15	13	1.0		매우 잘한다	31	2.4
	16	1	.1	중국(한족,기타민족)	중국(한족,기타민족)	231	18.0
가구조	결혼	1,206	94.0		중국(조선족)	126	9.8
	이혼	40	3.1	모(母) 출신 국가	베트남	543	42.3
	별거	11	.9		필리핀	131	10.2
	사별	24	1.9		일본	92	7.2
	동거	2	.2	태국	태국	30	2.3
경제수준	아주 어렵다	52	4.1		기타	130	10.1
	어려운 편이다	332	25.9				
	보통이다	830	64.7				
	잘사는 편이다	66	5.1				
	아주 잘 산다	3	.2				

2. 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분석과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우울의 평균은 7.797($SD=2.88$)였고, 부모방임의 평균은 11.762($SD=3.57$)이었으며, 사회적 위축의 평균은 6.600($SD=2.38$)이었다.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평균은 12.462($SD=1.97$)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의 정규성 검토를 위해 왜도와 첨도의 통계량을 산출한 결과, 왜도의 절댓값은 1.001이하였고, 첨도의 절댓값은 1.064 이하로 확인되었다. 왜도의 절댓값은 2이상, 첨도의 절댓값이 7이상일 때 정규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견해(Ryu, 2011)를 따르면, 본 연구의 변수들은 모두 정규성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본 연구 변인간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 결과, 우울은 부모방임($r=.478$, $p<.01$)과 사회적 위축($r=.546$, $p<.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친사회적 학교환경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r=-.321$, $p<.01$)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방임은 사회적 위축($r=.210$, $p<.01$)과 정(+)적 상관관계를, 친사회적 학교환경($r=-.275$, $p<.01$)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위축은 친사회적 학교환경($r=-.197$,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모든 변수 간 상관계수는 모두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중공선성 발생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인 .80 또는 .90 이상의 값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Midi, Sarkar, & Rana, 2010). 따라서 본 연구의 변수들 간에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변인 간 상관관계 및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N=1,283)								
구분	상관관계				기술통계			
	1	2	3	4	최소-최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우울	1				5-20	7.797(2.88)	1.001	.961
부모방임	.478**	1			7-25	11.762(3.57)	.524	-.264
사회적위축	.546**	.210**	1		3-12	6.600(2.38)	.092	-.800
친사회적 학교환경	-.321**	-.275**	-.197**	1	4-16	12.462(1.97)	-.178	1.064

** $p<.01$. 1=우울, 2=부모방임, 3=사회적위축, 4=친사회적 학교환경.

3. 부모방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 1인 부모방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성별, 가구구조, 경제수준, 학교성적 등 모든 통제변수를 포함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부모방임은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368, p<.001$), 이 통계모형은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92.307, p<.001$). 이러한 결과는 부모방임이 높을수록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우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부모방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N=1,283)

구분		B	SE	t
독립변수	부모방임	.368	.020	18.735***
	성별	-.362	.139	-2.604**
통제변수	가구구조	.379	.297	1.277
	경제수준	.016	.112	.147
	학교성적	-.629	.086	-7.315***
	상수항	5.122	.523	9.792***
Model fit		$F=92.307***, R^2=.265$		

** $p<.01$, *** $p<.001$.

4.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검증

연구가설 2인 부모방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 [그림 2]와 같다. 먼저 1단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 가구구조, 경제수준, 학교성적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부모방임은 매개변수인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123, p<.001$), 이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22.092, p<.001$). 다음으로 2단계에서 모든 통제변수를 포함한 상태에서 부모방임($B=.301, p<.001$)과 사회적 위축($B=.544, p<.001$)은 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였고, 이 회귀모형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73.570, p<.001$). 이를 통해 사회적 위축은 부모방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부모방임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축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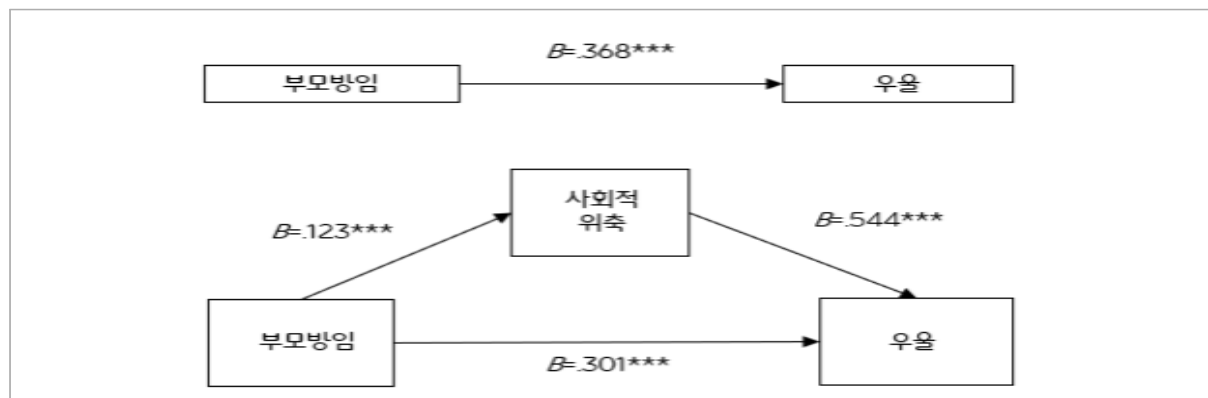
표 4.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N=1,283)

구분		1단계 부모방임 → 사회적 위축		2단계 부모방임 → 사회적 위축 → 우울	
		B(SE)	t	B(SE)	t
독립변수	부모방임	.123(.018)	6.784***	.301(.017)	17.400***
	사회적 위축			.544(.026)	20.644***
통제변수	성별	-.042(.128)	-.326	-.339(.120)	-2.818**
	가구구조	.360(.273)	1.316	.184(.257)	.714
	경제수준	-.056(.103)	-.557	.048(.097)	.492
	학교성적	-.541(.079)	-6.831***	-.335(.076)	-4.419***
상수항		6.598(.481)	13.700***	1.536(.485)	3.166**
Model fit		$F=22.092***, R^2=.080$		$F=173.570***, R^2=.449$	

** $p<.01$, *** $p<.001$.

그림 2.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부모방임이 사회적 위축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경로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사회적 위축을 통한 간접효과는 .0666(95% CI [.0444, .0890])이었고,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사회적 위축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매개효과	Effect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부모방임 → 사회적 위축 → 우울	.0666	.0115	.0444	.0890

5.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부모방임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가 친사회적 학교환경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 사회적 위축과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구성된 상호작용항이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483$, $p<.001$). 상호작용항을 모형에 추가함으로써 결정계수가 .0066이 증가하였으며, 이 변화량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5.9359$, $p<.001$).

표 6.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N=1,283)				
변수		B	SE	t
독립변수	부모방임	.2787	.0175	15.951***
매개변수	사회적 위축	.5273	.0260	20.253***
조절변수	친사회적 학교환경	-.1800	.0323	-5.5804***
상호작용항	사회적 위축×친사회적 학교환경	-.0483	.0121	-3.9920***
통제변수	성별	-.3387	.1183	-2.8629**
	가구구조	.2658	.2532	1.0499
	경제수준	.0578	.0954	.5451
	학교성적	-.2346	.0761	-3.0819**
상수항		4.9389	.4466	11.0592***
R2 변화량		$F=15.9359$ ***, $\Delta R^2=.0066$		
Model fit		$F=140.6700$ ***, $R^2=.4690$		

** $p<.01$, *** $p<.001$.

마지막으로, 친사회적 학교환경 수준에 따른 조건부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5,0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사회적 위축을 통한 매개효과는 친사회적 학교환경이 평균 -1SD일 때 .0733이었으며, 평균일 때 .0673, 평균+1SD일 때 .0496으로 나타나, 친사회적 학교환경 수준에 따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친사회적 학교환경이 평균-1SD, 평균, 평균+1SD일 때 모든 매개효과의 95% 신뢰구간 상·하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준다. 이는 조절변수의 값이 낮은 수준에서부터 높은 수준까지 모두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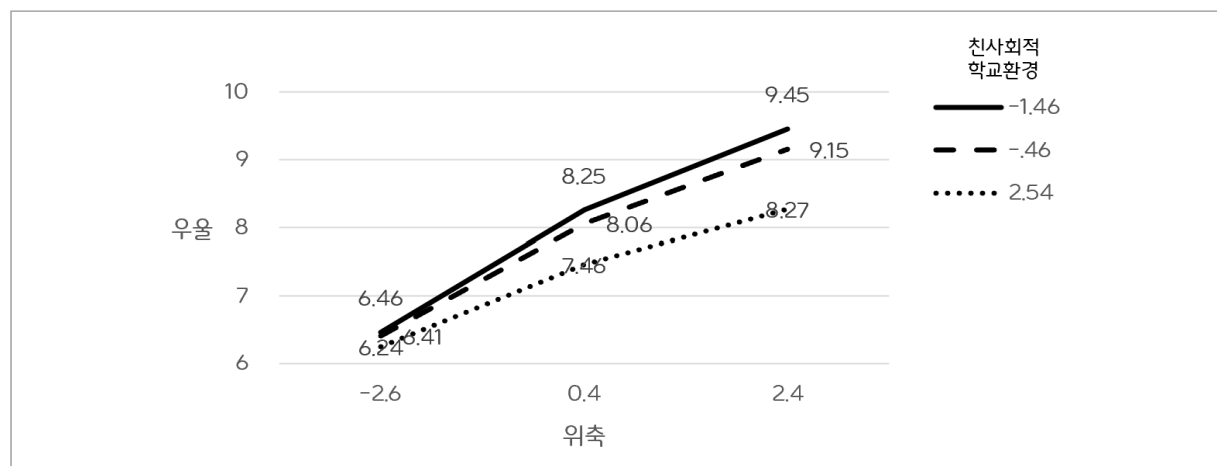
표 7. 친사회적 학교환경 수준에 따른 조건부 매개효과 검증 결과

친사회적 학교환경	부모방임 → 사회적 위축 → 우울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평균 - 1SD	.0733	.0310	.0482	.0995
평균	.0673	.0117	.0448	.0907
평균 + 1SD	.0496	.0102	.0312	.0712

주. BootSE=Bootstrap standard error, BootLLCI=Bootstrap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BootULCI=Bootstrap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그림 3]에서는 상호작용항의 조절효과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도식화하였으며, 그래프에서는 조절변수인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값이 커질수록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 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조절효과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확인을 위해 조절변수가 연속변수임을 고려하여 Hayes(2015)가 권장한 바와 같이 조절된 매개지수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5,0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조절된 매개지수는 -.0059(95% CI[-.0108, -.0015])로 조절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과적으로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인지한 부모방임은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 매개효과는 친사회적 학교환경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절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8. 조절된 매개지수 검증

조절변수	조절된 매개지수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친사회적 학교환경	-.0059	.0024	-.0108	-.0015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인지한 부모방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와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인지한 부모방임은 우울에 유의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B=.368, p<.001$). 일반긴장이론은 부모방임과 같은 만성적 긴장 요인이 우울·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직접 유발한다고 설명하는바(Agnew, 1992), 본 결과는 긴장원에서 부정적 정서로 이어지는 이론의 일차적 경로에 부합하며, 부모방임을 청소년 우울의 주요한 가족 관련 위험요인으로 다루어 온 선행 연구들(김평화, 이경상, 2018; 나지훈, 장은지, 2025; 안혜진, 2016; 최홍일, 김진희, 2013; 최효식, 연은모, 2022; 홍나미, 임은의, 2016)과도 전반적으로 일치한다.

특히 이 결과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 특성을 고려할 때, 우울을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관계적 환경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산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제결혼가정은 외형적으로 표준적 가족 형태를 띠고 있어 제도적 위험군으로 분류되거나 조기 개입의 대상으로 포착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외국인 어머니의 제한된 교육 지원 여건과 아버지의 양육 개입 부족이 결합될 경우, 방임은 신체적 결핍이 아닌 교육적·정서적 방임의 형태로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했으나 별도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속에서 발생하는 비의도적·구조적 방임으로, 기존 방임 연구에서 지적해 온 ‘은폐된 위험요인’(Hildyard & Wolfe, 2002) 논의와도 맥을 같이한다.

둘째, 부모방임이 우울로 곧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축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우울을 심화시키는 부분매개 경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간접효과=.0666, 95% CI[.0444, .0890]).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우울의 핵심 내재화 경로로 설명해 온 선행연구들(김수민, 2024; 박애리, 2014; 홍나미, 박현정, 2017)과 구조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일반긴장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매개 경로는 방임으로 누적된 긴장이 사회적 위축이라는 회피적 대처를 거쳐 이차적 긴장으로 축적되는 과정(Agnew, 1992)에 상응한다. 이때 매개 경로는 첫째 결과에서 확인된 직접효과와 분리된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 앞서 논의한 비의도적·구조적 방임이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거쳐 우울로 이행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제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은폐된 채 누적된 방임 경험은 국제결혼가정 자녀로 하여금 타인으로부터의 거부 가능성을 과도하게 지각하고 관계를 회피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소연, 안선경, 정익중, 2022; 양계민, 조혜영, 2012).

다만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두 집단 간 차이는 이러한 경로가 형성되는 맥락에서 나타날 수 있다. 비(非)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주로 개인의 기질이나 부모-자녀 관계와 같은 개인 및 가족 내 요인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온 반면(김후남, 정현희, 2018; 전성은, 강영신, 2024; Rubin et al., 2009),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여기에 언어·문화 환경의 이질성이라는 맥락적 요인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박선숙, 2022; 최효식, 연은모, 2020).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상언어에는 어려움이 없더라도 아동기 동안 잠재된 형태로 누적된 학습언어 격차가 발달적 전환기인 중학교 시기에 학업 수행과 또래 상호작용 과정에서 표면화되는 경험은(양계민, 조혜영, 2012;

Cummins, 1979), 또래 비교나 소외로 이어져 사회적 위축을 강화하고 우울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심리적 경로로 작동할 수 있다. 즉, 비(非)다문화 청소년에게서 확인된 부모방임-사회적 위축-우울의 구조가 국제결혼가정 자녀에게서는 관계적·환경적 요인과 결합되면서 보다 강화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부모방임-우울 관계가 단일한 개인 내 경로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상호작용하는 다층적 구조 속에서 작동함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는 두 집단을 직접 비교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선행연구에 기초한 이론적 추론으로서 후속 비교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셋째, 친사회적 학교환경은 사회적 위축과 우울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사회적 학교환경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기울기는 유의하게 완만해졌으며($B=-.0483$, $p<.001$), 조건부 간접효과 또한 학교환경이 긍정적일수록 감소하였다. 이는 학교환경이 가정 내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할 수 있다는 기존 보호요인 연구들(박현선, 1999; 장여옥, 2025; 정지나, 손승희, 2020)과 일치하는 결과로, 국제결혼가정 자녀에게 학교가 가정에서 충족되지 못한 정서적 욕구를 보완하는 대체적 지지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완충 효과의 작동 기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은 스스로 관계를 개시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존중과 수용이 학교의 전반적 분위기로 자리 잡은 환경에서는 자신이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배제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며, 이는 거부 경험의 반복과 그로 인한 정서적 고립의 심화를 차단할 수 있다. 이는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친사회적 학교환경이 개인의 노력으로 획득해야 하는 자원이 아니라 학생을 둘러싼 관계망에 내재된 사회적 자본(Coleman, 1988)이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가정 미시체계의 결핍을 학교 미시체계가 보완하는 중간체계 수준의 상호작용(Bronfenbrenner, 1979)에 부합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조건부 간접효과가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모든 수준에서 유의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은, 학교환경이 위축-우울 경로를 차단하기보다 그 강도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함을 시사한다.

다만 상호작용항 투입에 따른 설명력 증가량($\Delta R^2=.0066$)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그 크기는 크지 않은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성과 실질적 영향력의 크기는 구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친사회적 학교환경은 사회적 위축이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를 유의하게 완화하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부모방임에서 비롯된 우울의 위험을 충분히 상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친사회적 학교환경은 가정 내 위험요인에 대한 직접적 개입과 함께 작동할 때 실질적인 보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보완적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입 영역별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양육환경의 측면에서, 개입의 출발점은 부모가 방임이라는 양육태도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돕는 데 있다. 많은 국제결혼가정 부모들은 신체적 폭력이나 명시적 학대가 없을 경우 자신의 양육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교육적·정서적 방임이 일상화되고 은폐될 가능성이 크므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학업 성취의 급격한 저하, 또래 관계 회피 등을 문제 행동이 아닌 '방임 위험 신호'로 인식하도록 돕는 사례 중심 교육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방임이 가정 내부에서 은폐되기 쉬운 만큼, 교사가 학생의 사회적 위축이나 또래 관계 단절 양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학교 내 전문 인력과 공유하는 학교 기반 선별 체계가 필요하며, 이 체계는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심리적 개입의 측면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개입은 또래 관계 기술 훈련이나 정서 지원에 국한되기보다 학습언어 지원과 성취 경험의 재구조화를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학교환경의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가 국제결혼가정 자녀에게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가정의 정서적·교육적 결핍을 보완하는 제2의 사회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친사회적 학교환경이 '위로하는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실패가 허용되고 도전이 다시 기회로 연결되는 성장 환경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소집단 활동 등 다양한 장면에서 작은 성취 경험이 반복·누적될

때 위축된 청소년도 관계와 참여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회적 위축이 우울로 심화되는 경로를 완화하는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통합지원' 시범사업(성평등가족부, 2026)은 방임과 위축이 누적되기 이전 단계에서 예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의미 있는 접점을 가진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우울이 단일한 개인 내 문제라기보다 부모방임이라는 가족 환경과 사회적 위축이라는 심리적 경로, 그리고 학교 환경이라는 맥락적 조건이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우울을 개인의 취약성으로 환원하지 않고 부모방임-사회적 위축-우울이라는 내재화 경로를 구조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과정 중심의 설명 모델을 제시하였다. 둘째, 이 경로가 친사회적 학교환경에 의해 완충될 수 있음을 조절된 매개효과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환경적·구조적 개입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우울 문제에 대한 개입이 가정 또는 학교 어느 한 영역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부모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학교 기반의 조기 선별, 지역사회 전문 자원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층적·통합적 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임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횡단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변인 간 인과적 방향성을 확정하기 어려우며,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보호 효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종단 자료를 활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분석 대상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정되어 있어,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 가정 자녀 등 다양한 이주 배경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효과가 집단별로 어떻게 차별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비(非)다문화 청소년과의 체계적 비교를 통해 국제결혼가정 자녀에게서 관찰되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경로가 비(非)다문화 청소년의 경로와 어떠한 구조적 차이를 지니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개념과 측정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친사회적 학교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문항("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등)와 유사한 문항("수업이 재미있다" 등)은 일부 선행연구에서 학교적응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 바 있다(이혜진 외, 2024; 최홍숙, 202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문항이 수업, 교사, 또래관계가 얼마나 우호적이고 지지적인지에 대한 인식을 묻는다는 점에서 개인의 적응 결과보다는 외적 환경의 속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다. 다만 유사한 문항이 연구에 따라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은 친사회적 학교환경에 대한 개념적 합의와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개념을 보다 정교화하고, 이에 부합하는 척도를 개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나지훈은 숭실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신건강, 청소년, 중독이다.

(E-mail: lovewins@cu.ac.kr)

장은지는 동아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본 논문 투고 당시에는 동의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외래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사회적 자본, 이주배경청소년, 고등교육이다.

(E-mail: 8336179@naver.com)

참고문헌

- 강민재, 나지훈. (2025).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우울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와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27(4), 81-108. <https://doi.org/10.19034/KAYW.2025.27.4.04>
- 교육부. (2025).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 그레이스 정, 이지연. (2016).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보건사회연구*, 36(3), 336-362. <https://doi.org/10.15709/hswr.2016.36.3.336>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금순, 김은미. (2015). 청소년의 정서문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의존을 매개효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38, 33-57.
- 김동욱, 장근호, 조민호. (2023).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차별인식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33(3), 1-37. <https://doi.org/10.26847/mspa.2023.33.3.1>
- 김동진, 서은숙. (2021). 차별 경험에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차별하는 주체의 구분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60(2), 169-183.
- 김소연, 안선경, 정익중. (2022).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우울, 사회적 위축, 신체화 증상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69(4), 143-179. <https://doi.org/10.16975/kjfs.2022.69.4.143>
- 김수민. (2024).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방임과 우울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3(2), 85-118. <https://doi.org/10.21181/KJPC.2024.33.2.85>
- 김수정, 곽금주. (2012).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인 간 관련성에서 차이: 양육효능감, 자아개념 그리고 친사회성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9(3), 85-105.
- 김평화, 이정상. (2018). 부모학대 및 방임 경험이 보호관찰소 보호처분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10), 175-203. <https://doi.org/10.21509/KJYS.2018.10.25.10.175>
- 김형태. (2013). 고등학교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학교적응 요인-미국 유학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6, 269-296.
- 김혜미, 원서진, 최선휘. (2011).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차별경험과 심리적 적응: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42(1), 117-149. <https://doi.org/10.16999/kasws.2011.42.1.117>
- 김후남, 정현희. (2018). 청소년의 초기 외상경험과 우울의 관계: 거부민감성, 사회적 위축, 대인관계 문제의 순차적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8(3), 247-265. <https://doi.org/10.33703/cbtk.2018.18.3.247>
- 나지훈, 장은지. (2025). 부모방임이 청소년의 차별해결경험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와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조절된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10), 985-1002. <https://doi.org/10.22251/jlcci.2025.25.10.986>
- 류승아. (2024). 인권과 사회자본이 청소년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 초·중·고등학생의 차이. *공공정책연구*, 41(1), 99-128. <https://doi.org/10.33471/ILA.41.1.4>
- 민장배, 송진영. (2023). 다문화 청소년이 인지하는 방임적 부모양육태도가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친구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2), 125-145. <https://doi.org/10.30974/kaice.2023.12.2.6>
- 박기원. (2014).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5(1), 1-15. <https://doi.org/10.5723/KJCS.2014.35.1.1>
- 박미경, 엄정애. (2007). 결혼이민자 가정의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 *한국교원교육연구*, 24(1), 5-29. <https://doi.org/10.24211/tjkte.2007.24.1.5>
- 박선숙.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부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79, 1-31. <https://doi.org/10.35422/cwsk.2022.79.1>
- 박애리. (2014). 자각된 방임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청소년복지연구*, 16(4), 397-416.

- 박영신, 박영균, 김의철. (2010).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부모의 사회적 지원, 어려움극복효능감, 스트레스 관리행동의 영향: 초, 중,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2), 197-219.
- 박현선. (1999). 고위험 빈곤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사회복지학*, 37, 195-216.
- 박희훈, 오성배. (2014).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급별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2(2), 35-57.
- 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 (2017).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보금로, 장영은. (2024). 다문화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과 부모감독의 이중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1), 211-230. <https://doi.org/10.22251/jlcci.2024.24.1.211>
- 서덕희, 오성배. (2012).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교육관과 실제: 학력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39(1), 169-207. <https://doi.org/10.22804/jke.2012.39.1.007>
- 설동훈, 윤홍식.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출신국가와 거주지역에 따른 상이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2), 109-133.
- 성평등가족부. (2026).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대상 맞춤형 통합지원. 성평등가족부.
- 손병덕. (2005). 일반청소년, 학습장애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충동에 미치는 다변적 요인예측. *청소년학연구*, 12(1), 207-228.
- 안혜진. (2016).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적응 간의 중단연구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2), 475-493. <https://doi.org/10.22251/jlcci.2016.16.12.475>
- 양계민, 조혜영. (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9(11), 195-224.
- 여성가족부. (202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5).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여성가족부.
- 오동균. (2019).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방임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중등교육연구*, 67(3), 439-459. <https://doi.org/10.25152/ser.2019.67.3.439>
- 오성배. (2006). 한국 사회의 소수 민족(ethnic minority), '코시안(Kosian)'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16(4), 137-157.
- 오성배. (2010). 다문화 교육 정책의 과제와 방향 탐색. *교육사상연구*, 24(2), 149-170. <https://doi.org/10.17283/jkedi.2010.24.2.149>
- 오승환. (2016).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6, 1-27.
- 유연주, 전주성. (202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비행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이중매개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22(2), 425-445. <https://doi.org/10.15818/ihss.2021.22.2.425>
- 유지희, 황숙연. (2016).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경험과 관련요인: 일반청소년과의 비교.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3(1), 115-146.
- 이경상, 백혜정, 이종원, 김지영. (2011).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2010 II: 사업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달-맥락주의적 관점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1(8), 317-346.
- 이영애, 정현희. (2017). 아동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 우울 및 공격성의 다중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6), 53-79. <https://doi.org/10.21509/KJYS.2017.06.24.6.53>
- 이용호, 신혜형, 이원익. (2023).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기 자녀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72(2), 133-162. <https://doi.org/10.24300/jkscw.2023.06.72.2.133>
- 이정선, 이형실. (2012). 청소년의 우울 관련 요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4(4), 77-89.
- 이혜진, 김예지, 김경현, 김한솔. (202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7(4), 1-19. <https://doi.org/10.14328/MES.2024.12.31.1>
- 임동선, 김지애, 오수진, 이은진, 조수정, 박원정. (2021). 다문화 학생의 모국어 사용이 학생 및 부모요인에 미치는 영향. *언어치료연구*, 30(1), 135-147. <https://doi.org/10.15724/jslhd.2021.30.1.135>
- 임영은, 임동선. (2025).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 문제 군집유형에 따른 부모 양육 관련 변인 차이 연구: 정서 문제 고위험, 저위험

- 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31(2), 767-785. <https://doi.org/10.24159/joec.2025.31.2.767>
- 장신재, 양혜원. (2007). 부모-자녀관계, 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8(2), 5-29.
- 장안서, 이해정. (2024). 여성결혼이민자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35(4), 151-172. <https://doi.org/10.16881/jss.2024.10.35.4.151>
- 장여옥. (2025).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지지의 관계: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10(3), 1-22. <https://doi.org/10.56023/mcyca.2025.10.3.1>
- 전경숙, 박소연, 조선희. (2012). 한국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생각 영향요인의 남녀차이. *보건의료산업학회지*, 6(4), 295-308.
- 전성은, 강영신. (202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 친구 관계, 교사 관계의 다중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16(1), 47-61. <https://doi.org/10.35185/KJET.16.1.3>
- 전수정, 윤혜미. (2013).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방임, 문화변용스트레스 및 자이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4, 153-179.
- 정일영. (2016).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42, 87-118.
- 정장홍, 이용환. (2016). 친사회적 학교 커뮤니티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교육, 녹색환경연구*, 15(3), 15-25.
- 정정교, 정혜원. (2023). 중학생의 행복감 변화궤적에 대한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동시 및 지연효과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4(4), 35-60. <https://doi.org/10.14816/sky.2023.34.4.35>
- 정지나, 손승희. (2020). 지지적인 학교환경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직렬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6), 105-122. <https://doi.org/10.14698/jkce.2020.16.06.105>
- 정혜지, 나지훈. (2025).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와 교사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5), 191-208. <https://doi.org/10.22251/jlcci.2025.25.5.191>
- 조혜민, 전종설. (2024). 학대 및 방임이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 학업형, 비학업형 집단 간 차이 탐색. *청소년 문화포럼*, 77, 171-207. <https://doi.org/10.17854/ffyc.2024.01.77.171>
- 질병관리청. (2022). 제18차(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질병관리청.
- 천호성, 박계숙. (2012).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2(2), 416-444.
- 최진영, 김기현. (2019). 부모의 간접적 애정표현이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66, 185-217. <https://doi.org/10.24300/jkscw.2019.06.66.185>
- 최현진, 장동균, 김희선, 차승현, 이은환. (2015).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13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활용하여. *의료경영학연구*, 9(1), 31-38.
- 최홍숙. (2024).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문화수용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4(4), 127-154. <https://doi.org/10.35281/cms.2024.11.14.4.127>
- 최홍일, 김진희. (2013). 아동, 청소년기의 방임적 양육 경험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우울에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4, 127-153.
- 최효식, 연은모.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변화에 대한 부모감독, 문화적응스트레스, 또래관계의 동시 및 지연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8), 111-126.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18.111>
- 최효식, 연은모. (2022).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 방임, 심리적 특성, 스마트폰 중독 간 구조적 관계: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6), 83-98.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6.83>
- 하형석, 김성은, 이종원, 정은진, 한지형. (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IX: 사업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 MAPS 2기 패널(1-5차) 데이터 유저가이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홍나미, 박현정. (2017). 부모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 *미래사회복지연구*, 8(2), 125-151.
- 홍나미, 임은의. (2016).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소외와 휴대폰 의존의 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20(3), 417-436. <https://doi.org/10.21459/kccr.2016.20.3.417>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8. <https://doi.org/10.1111/j.1745-9125.1992.tb01093.x>
- Akhtar, S. (2014). The mental pain of minorities. *British Journal of Psychotherapy*, 30(2), 136-153. <https://doi.org/10.1111/bjp.12081>
-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1), 90-113. <https://doi.org/10.1037/0033-295X.97.1.90>
- Boszormenyi-Nagy, I., & Spark, G. M. (1973). *Invisible loyalties: Reciprocity in intergenerational family therapy*. Hagerstown, MD: Harper & Row.
- Bowker, J. C., & Raja, R. (2011). Social withdrawal subtypes during early adolescence in India.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2), 201-212. <https://doi.org/10.1007/s10802-010-9461-7>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S95-S120. <https://doi.org/10.1086/228943>
- Cummins, J. (1979). Cognitive/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linguistic interdependence, the optimum age question and some other matters. *Working Papers on Bilingualism*, 19, 121-129.
- Hankin, B. L. (2006). Adolescent depression: Description, causes, and interventions. *Epilepsy & Behavior*, 8(1), 102-114. <https://doi.org/10.1016/j.yebeh.2005.10.012>
- Hayes, A. F. (2015). An index and test of linear moderated mediation.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50(1), 1-22. <https://doi.org/10.1080/00273171.2014.962683>
- Haye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3r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ildyard, K. L., & Wolfe, D. A. (2002). Child neglect: Developmental issues and outcomes. *Child Abuse & Neglect*, 26(6-7), 679-695. [https://doi.org/10.1016/S0145-2134\(02\)00341-1](https://doi.org/10.1016/S0145-2134(02)00341-1)
- McLeod, B. D., Weisz, J. R., & Wood, J. J. (2007). Exam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and childhood depression: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8), 986-1003. <https://doi.org/10.1016/j.cpr.2007.03.001>
- Midi, H., Sarkar, S. K., & Rana, S. (2010). Collinearity diagnostics of 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Mathematics*, 13(3), 253-267. <https://doi.org/10.1080/09720502.2010.10700699>
- Morales, A., & Hanson, W. E. (2005). Language brokering: An integrative review of the literature.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7(4), 471-503. <https://doi.org/10.1177/0739986305281333>
- Paxton, S. J., & Diggins, J. (1997). Avoidance coping, binge eating, and depression: An examination of the escape theory of binge ea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2(1), 83-87. [https://doi.org/10.1002/\(sici\)1098-108x\(199707\)22:1<83::aid-eat11>3.0.co;2-j](https://doi.org/10.1002/(sici)1098-108x(199707)22:1<83::aid-eat11>3.0.co;2-j)
- Rubin, K. H., Wojslawowicz, J. C., Rose-Krasnor, L., Booth-LaForce, C., & Burgess, K. B. (2006). The best friendships of shy/withdrawn children: Prevalence, stability, and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2), 143-157. <https://doi.org/10.1007/s10802-005-9017-4>
-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60.110707.163642>
- Ryu, E. (2011). Effects of skewness and kurtosis on normal-theory based maximum likelihood test statistic in multilev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ehavior Research Methods*, 43(4), 1066–1074. <https://doi.org/10.3758/s13428-011-0115-7>

Snow, C. E., & Uccelli, P. (2009). The challenge of academic language. In D. R. Olson & N. Torrance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literacy* (pp. 112–133).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e Effect of Parental Neglect on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rosocial School Environment

Na, Jihun¹ | Jang, Eunji^{2*}

¹ Daegu Catholic University

² Dong-A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Jang, Eunji
(8336179@naver.com)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perceived parental neglect on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withdrawal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a prosocial school environment. Data were analyzed from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MAPS), involving 1,283 participants. PROCESS macro (Models 4 and 14) and bootstrapping were employed for hypothesis testing.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ental neglect exerte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adolescent depression. Second, social withdrawal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neglect and depression, indicating that neglect exacerbates depression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ird, a prosocial school environment significantly moderated the link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effectively attenuating the negative impact of withdrawal. Consequently,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was confirmed.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multilayered intervention strategies, including parent education to reduce neglect, school-based early screening systems, and the cultivation of prosocial school environments to prevent depression among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Keywords: Adolescents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Parental Neglect, Depression, Social Withdrawal, Prosocial School Environment